

기획 / 착한 사람들 (5) 제주영지학교

“장애 구매받지 않고 나눔 실천”



직접 물품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 기부
올해도 동참하며 누적액 553만원 기록



물품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는 영지학교 학생들.

장애라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한라일보와 제주사랑의열매가 공동기획하는 착한사람들 다섯 번째 주인공은 제주영지학교다.

제주시 이도동에 위치한 제주영지학교는 시각·청각·지체장애 등 장애학생들이 공부하는 공립 특수학교다.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전공과 등 5개 교육과정 운영되고 있다.

제주영지학교 중·고등부 학생 100여명은 '진로와 직업' 과목 중 직업교육의 일종으로 공예품, 도자기, 다육이, 목공예 제품 등 다양한 물품들을 만들고 1년에 한 번 열리는 학교 축제 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준비부터 완성까지 스스로 해내야 하는 '만들기'는 학생들에게 낯선 작업이었다. 하지만 중간중간 찾아오는 힘든 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면서 하나씩 멋진 작품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열심히 만든 작품을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학생들은 교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고, 물품 판매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2022년, 제주영지학교와 사랑의열매의 인연이 시작됐다. 이들은 그해 12월 수익금 343만7500원을 기부한데 이어 지난 3일, 209만8000만원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하면서 누적 기부액 553만5500원을 기록했다.

김보영 교사는 "낯선 작업에 학생들이 고생이 많았을 텐데 어려운 이웃을 돕자며 의욕적으로 공을 들여 만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면서 "장애라는 상황에 구매받지 않고 누구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한라일보·제주사랑의열매 공동기획>

■ 제주도교육청 제3차 학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10명 중 1명꼴 이유없이 차별 당해”

도내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학생 10명 중 1명이 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는 20%대에 그쳤다.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한 '2023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학생 1791명, 교직원 488명, 보호자 836명 등 총 3115명이 참여했다.

실태조사에서는 교육주체들의 인권 의식을 비롯해 학생 인권보장 제도에 대한 인식, 학교생활에서의 학생 인권침해 경험, 인권침해 구제 현황과 학생 인권교육 등 학교 생활에서의 전반적인 학생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우선 '지난 1년 이내 학교에서

학생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초등학생들은 '의사 표현의 자유와 참여권 보장' (68%)을 꼽았으며, 중학생이 가장 많이 경험한 인권침해 항목은 '복장·두발·용모 등 개성 실현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 (66.1%)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의 자유' (45.2%)와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권리' (39.2%) 등의 응답이 높았다.

학교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12.4%, 중·고등학생 9.3%, 교직원 17.6%, 보호자 12.9%가 그렇다고 답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는 20%대에 그쳤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에 대해 묻은 결과, 초등학생은 25.6%, 중고등학생은 26.9%만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교직원의 인지는 74%였으며 보호자는 35.7%를 나타냈다.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고등학생의 경우 절반 수준에 그쳤다.

'1년 이내 학교에서 인권 관련 교육 및 연수를 받았다'는 응답에 초등학생은 79.6%가 답했지만 중학생은 63.9%, 고등학생은 52.5%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자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및 학교 구성원 대상 인권 감수성 함양 교육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도교육청 '수어' 직장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일 다양한 교육주체와의 소통 강화 및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수어 직장교육 '수어, 보다! 배우다!(수어보배)'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직장교육 '수어보배'는 도교육청 수어통역사 박상훈 주무관이 직접 수어로 강의를 진행하며, 매일 아침 전 부서 TV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은 수어 직장교육을 통해 청각장애 인과의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청각장애인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눈 세상 1100고지 8일 1100고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눈 쌓인 제주 겨울을 만끽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작년 제주도민 4만7108명 헌혈했다

제주혈액원 실적 100.6%로 전국 유일 목표 초과

제주혈액원이 헌혈 실적 100.6%를 달성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목표치를 초과했다.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은 2023년 한 해 제주에서 4만7108명이 헌혈에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4만6840명보다 268명 늘어난 수치이다.

제주혈액원은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헌혈센터 4곳과 헌혈버스 2대를 운영해 센터에서는 개인, 버스에서는 단체를 대상으로 헌혈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개인과 단체 헌혈자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개인 헌혈자는 3만2895명으로 전년 대비 4123명 (14.3%)이 늘어났으며, 단체 헌혈자는 전년 대비 1232명 (9.5%)이 늘어난 1만420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귀포 센터 헌혈자는 5553명으로 전년 대비 3311명이 늘어나며 147.8%의 증가율

을 보였다.

서귀포센터는 2022년, 서귀포시민 헌혈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내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 제주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소했다. 개소 이래 헌혈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센터는 올해 헌혈자 목표를 전년 대비 30% 증가한 6500명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헌혈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제주혈액원의 2024년 헌혈목표는 전년도 대비 3480명 (7.4%)이 증가한 5만320명이다.

김영섭 제주혈액원장은 "헌혈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검찰, 성매매 의혹 전 도의원 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매매)로 강경흠 전 제주도위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검거한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 업주를 상대로 매출 자료를 조사하

던 중 강 전 의원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한 끝에 그해 7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 전 의원이 지난 2022년쯤 해당 업소에 계좌 이체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문제가 불거지자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강 전 의원을 제명했으며 이후 강 전 의원은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길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여정에 저희가 같이 걸겠습니다.
고인과 유가족, 조문객 여러분께 좋은 기억으로 남을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약속 드립니다.

24시간 전문 장례지도사들이 상주하여 전화한통으로
운구에서 발인까지 책임지고 장례절차를 도와드립니다.

도내 최대 규모의 호텔식 장례식장으로
품격있는 장례문화를 추구합니다.

탁트인 전망과 다양한 편의시설, 쾌적하고 넓은
분향실과 접객실, 게스트룸이 완비 되어 있습니다.

훈길장례식장

24시간 상담 및 출동대기

064-744-1245

제주시 공항서로 131 (제주시 오일장 - 공항사이)